



고려대 법대 신관 옥상정원



인천 송도신도시 중앙공원 생태주차장

Landscape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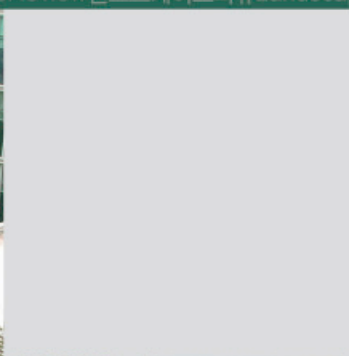
주경정보 vol.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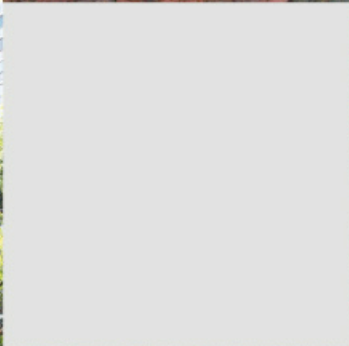
육상녹화소재 세덤



동국대학교 옥상정원



별말어린이공원 자가능력 놀이시설



인면녹화소재 그린베네티



양주 저미의 단지내 생태기



서초구 벽면녹화



월드컵공원 태양광 파빌리온

Contents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조경

- 02 저탄소 녹색성장 조경
- 04 녹색성장 조경이 완성한다
- 06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 07 Issue & News



그리니치 밀리너리 빌리지 _ 영국

저탄소 녹색성장과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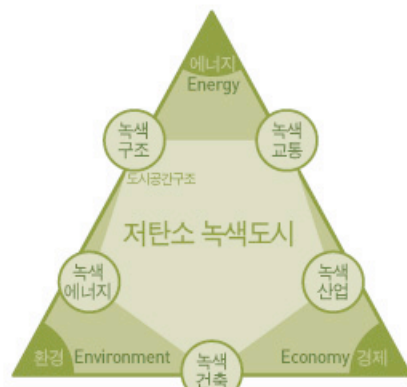
이재준 Lee, Jae Jun ·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Low Carbon Green Growth and Landscape Architecture



그리니치 밀리너리 빌리지 _ 영국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도시, 그리고 조경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방향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위주의 개발논리와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소비 및 산업구조로 인해 전 세계는 지금 환경위기와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의 3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정립한 진보와 발전의 이념이 녹색성장이다. 우리시대 녹색성장 green growth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자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같은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가 저탄소 녹색도시이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구체적인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기초하여 탄소저감, 탄소흡수, 그리고 기후변화적응 등의 측면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위주의 개발논리와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소비 및 산업구조로 인해 전 세계는 지금 환경위기와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의 3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정립한 진보와 발전의 이념이 녹색성장이다. 우리시대 녹색성장 green growth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자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같은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가 저탄소 녹색도시이다.

| 구분 | 에너지Energy | 친환경Environment | 경제Economy |
|--------|------------------------------|------------------------------------|---------------------------------|
| 녹색공간구조 | • 압축적 도시공간구조 • 대중교통지향형 도시 | • 화이트(바람길) 네트워크 • 그린(녹지) 네트워크 등 | • 복합토지이용 |
| 녹색교통 | • 자전거도로망 구축 • 신고용수단 및 그린카 | • 그린웨이 • 교통정온화방안 | • 대중교통 복합승차시설 • 대중교통 중심 프로그램 |
| 녹색산업 | • 녹색기술연구 • 에너지저장형 녹색산업 | • 녹색산업·예술·문화·교육 복합형 테마단지 | • 고부가가치 녹색성장산업 • 녹색뉴딜사업 연계 |
| 녹색건축 | • 녹색건축 테스트베드 • 녹색시범마을 조성 | • 입체녹화(지붕, 벽면 등)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 패시브하우스 • 공원연계 그린스쿨 |
| 녹색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 도입 (태양열, 풍력, 지열 등) | • 바이오 연료 활용 • 폐기물 재활용 |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단지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3E+5G 계획방향

Energy, 친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등의 '3E'와 녹색공간구조, 녹색교통, 녹색산업, 녹색건축, 녹색에너지 등의 '5G(Greenplan)'로 계획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조경의 역할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해 조경분야가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 친환경, 경제 부문 중 특히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바람길 네트워크, 그린 네트워크, 그린웨이, 교통정온화 방안, 녹색산업·예술·문화·교육 복합형 테마단지, 입체녹화(지붕, 벽면 등),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바이오 연료 활용, 폐기물 재활용 등의 5G부분의 기술 개발에 조경분야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과 신진사태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조경분야의 실천전략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영국 BedZED 계획사례



UAE Masdar 계획도



독일 Riem 계획도



중국 동탄에코시티 조감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탄소흡수를 위한 건축, 단지, 도시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탄소흡수 요소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단지내 텃밭 조성은 통해 이웃 간의 친목 도모와 친환경 공원의 역할을 하는 영국의 베드제드 주거단지, 국내 롯데아파트 옥상에 조성하는 텃밭, 중국 충밍성 동탄신도시의 100% 옥상녹화를 통한 천연 방열층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탄소흡수형 녹지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다섯째, 저탄소 녹색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일본 키티큐시는 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시민으로부터의 약속, 환경행동 10대 원칙 등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 도시 및 산업기반을 통해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변환을 추구하는 도시이다. 이같은 저탄소 녹색도시의 조경에 의해 기술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경은 토지를 계획·설계·관리하는 기술로서 기후온난화에 대응하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가장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ee@uhs.ac.kr



- 1 서울특별시 전세, 지구온난화 방지, 친환경 에너지 선연 발표
- 2 서울특별시 상동구, 기후온난화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2007)
-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원 조사
- 4 경기도, 탄소중립관련 T&E팀 구성
- 5 과천시, 안산시, 수원시, 2018년까지 200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 감축
- 6 광역 도시권 택지개발지구,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의 5% 이상 시범도시
- 7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마련, 친담지구 구성
- 8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친담지구 구성계획
- 9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추진전략 수립 및 조례 제정
- 10 부산광역시,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
- 11 진주시, 통합형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 확립
- 12 제주도,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

첫째,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해 도시를 압축적으로 이용하고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토지이용을 생각할 수 있다. 도시내 차량이동을 최소화하여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도시중심을 복합용도로 압축개발하여 도시중심부와 근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감형 도시공간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둘째,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지역 중심에 지하철, 전차 등의 대중교통을 연결하고 통학, 쇼핑, 레저 등 생활환경은 자전거와 보행으로 연결한다. 이것은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취지로서, 최근 논의되는 자전거 도시가 바로 이 같은 녹색교통개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무배출 공원 녹지를 지향해야 한다. 마스다르 신도시의 경우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도시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100%를 활용하고 있다. 도시내 탄소배출의 대부분이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임을 감안하면 도시의 공원화 녹지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 구분 | Masdar | BedZED | Riem | 동탄에코시티 |
|-------------|--|--|---|---|
| 위치 | UAE 아부다비 외곽 | 영국 런던시 서든 | 독일 뮌헨 | 중국 충밍성 |
| 규모 | 약 7km, 5만명 | 16,500m ² , 100세대 | 5,56km ² , 6,500세대 | 약 86km ² , 50만명 |
| 주체 | ADFEC, Foster & Partner | Peabody Trust, Bill Dunster | Juergen Frauenfeld, Gilles Vexlard | 상하이SIIC, 영국ARUP |
| 특징 | 220억 달러를 투입하여 2008년 2월부터 2016년까지 7단계에 걸쳐 원형 예정 | 영국 최초의 친환경, 탄소중립 복합개발 | 민선 동부지역에 특별한 기능 및 산업, 주거를 창출하는 생태도시 | 2001년 국가 규획에 따라 40여 년간 장기프로젝트로 건설 |
| 도시 공간 구조 사례 | • 저층 고밀도의 근린주구 개발을 통해 에너지 의존성 낮춤 • 도보하기 편리한 가로환경 계획(그린길, 최대 가로길이 200m로 제한함) • 도시 북쪽에서 남서로 난 대로와 wind tower, 좁은 가로 등 자연통풍을 최대로 이용하여 건물 냉각 도모 • 담수화 작업을 통해 도시 전체 물리사이클링 | • 직주근접 개념 도입 • 줄어든 주차면적에 공원 조성 • 모든 가구 남향 배치(사무실은 북쪽에 위치시켜 직접채광보다 간접채광을 유도해 업무의 효율을 높임) • 단지 내 친환경 공원으로서는 텃밭 조성 | • compact city 조성 : 이동거리의 최소화, 에너지 절감형 단지 배치 • 주거와 업무공간의 연계, 복합 단지 개발, 녹지공간 최대화 • 400m 폭으로 조성된 대규모 경관공원을 녹지축으로 조성함 • 오픈 스페이스 내 저밀 수목 식재,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필로티 조성 등을 통해 원활한 바람의 흐름을 유도 | • 직주근접형 설계 • green corridor를 통해 도시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효과 • 동탄 최동단에 조류 자연보호구역(폭 2km, 길이 10km, 면적 24km ² 규모) 주변 습지공원 조성 • 27km ² 규모의 생태농장 조성 |

녹색성장, 조경이 완성한다

녹색성장이 21세기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성장, 그린뉴딜, 그린슈머 등 도시 전체가 녹색빛으로 물들고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에너지, 친환경, 경제부문 중 특히 친환경부문은 조경분야가 지향하고 있는 본질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 조성' 과 그 맥을 함께한다. 바람길 네트워크, 그린네트워크, 그린웨이, 녹색산업·예술·문화·교육 복합형 테마단지, 입체녹화, 투수형 포장, 재생에너지 사용 등 저탄소 녹색도시를 향한 5G계획의 많은 영역이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조경의 업역이라는 점이 포인트. 꾸준히 도시에 녹색공간을 늘리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진화해 온 조경분야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지금이다.

**Green UP!
CO₂ DOWN!**



- 1 독일 프라이부르크 생태주거단지
- 2 독일 슈투트가르트 킬레스베르크공원
- 3 일본 후쿠기 옥상정원
- 4 일본 오키나와 해양엑스포공원 내 옥상정원
- 5 일본 후쿠오카 이크로스빌딩



Park and Greenery

뫼니뫼니해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의 1등 공신은 도심의 허파기능을 하는 공원.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는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 수단으로 다양한 공원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도시로의 발전을 재촉하고, 이에 질세라 기존의 도시들도 옥상정원 또는 학교숲, 담장허물기, 걷고싶은 거리, 쌈지공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조경공간을 조성하고 및 기존 도시숲의 활용을 통해 도시 속의 일부였던 선형 녹지들을 면적인 녹지로 팽창시키며 녹색공간을 늘려가고 있다. 살기좋은 도시의 요건을 묻는 설문에서 주거지 인근의 공원과 녹지가 최상위조건으로 꼽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서울시가 기치로 내건 '숲 속의 도시'가 바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반응인 듯한데, 키워드 하나를 보낸다면 '세련되고 풍부한 녹지를 가진 숲 속의 도시'가 바로 조경이 꿈꾸는 이상도시가 아닐런지.



아름방송 옥상정원



Blue Network

기후온난화를 감소시키는 또다른 수문장 물. 도시열섬효과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블루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조경에서 다루는 수경관과 수생태계는 무궁무진하다(조경정보 1호 참조). 워터프론트와 생태하천복원을 비롯해, 특히 주거단지 곳곳에 실용적으로 도입되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연못과 실개천들이 블루네트워크 연계는 물론 도심내 비오톱 생성에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유출수를 재활용하는 가로공원 및 계류가 곳곳에 만들어져 도시의 열섬효과 감소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커뮤니티 및 휴식공간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광진구 백연녹화



개포 지이 생태블럭



Green Energy

녹색성장과 함께 수립되는 다양한 그린전략들 중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에너지 산업으로서 조경의 역할이 부각되기 때문. 일례로 최근 공원에 도입되고 있는 자연에너지 및 동력에너지를 이용한 휴게시설 및 체육·놀이시설, 조명시설 등을 비롯해 친환경 놀이시설과 친환경 및 재생 소재의 사용은 에너지 효율측면은 물론, 이용자들의 환경마인드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우수처리시설 활용 및 녹색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는 자전거의 활용유도를 위한 공간 조성에도, 도시의 통풍을 위한 도시공간배치 및 바람길 형성에도,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건축물의 완성에도 조경가들의 섬세한 손길이 닿으면서 녹색도시의 완성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김천어린이공원의자기발전 조하늘이서양



금천구청의 태양열 에너지 시설과 옥상정원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이유직 Lee, You Jick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한 녹색성장의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을 지난 7월 초 확정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 및 녹색경제체계의 구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지속가능 발전 정책, ▶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 교통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재원조달, 조세, 금융, 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펼칠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 및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의 3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①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탈석유, 에너지 자립강화, ③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④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산업구조의 고도화, ⑦녹색경제 기반조성, ⑧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⑨생활의 녹색혁명, ⑩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의 10대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특히, 금번 계획 속에는 국토조경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항목에 걸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생활 속에서 체감가능한 생태공간의 확대와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생태하천, 녹색림, 도시공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보호지역의 면적을 현재의 10만ha에서 2020년 15만ha, 2050년 25만ha로 확대할 계획이라 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정주공간 녹색화 및 자원 순환형 지역개발을 위하여 녹색도시 모델개발과 조성, 녹색 건축물 확대 등을 추진하여 현재 한 군데도 없는 UN 녹색우수도시를 2020년에는 5개, 2050년에는 10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카, 철도,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도 현재의 1.5% 수준에서 2020년 10%, 2050년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유럽의 Green way 수준의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3,114km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한 녹색국토 구현을 위하여 탄소 흡수원 가치가 높은 산림, 도시숲, 농지, 수자원, 해양을 적극 보전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복개되어 있거나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여 시민참여 기반의 저탄소 녹색림으로 조성하고, 도시생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활체감형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계획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1,800ha 수준의 녹색림의 면적을 2013년에는 2,500ha 수준으로 늘리고 현재의 60% 수준인 생태하천의 비율을 2013년에는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단위의 녹색생활 전략수립 및 실천의 총 거점이 될 녹색마을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현재 한 군데도 없는 녹색마을센터를 2013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7조 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연간 평균 GDP의 약 2% 수준의 재정투자로서 UN Green Economy Initiative의 녹색투자 권고치의 두 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번에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은 국토의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커다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녹색성장의 시대는 지금까지 친환경적이고 친문화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조경분야로 하여금 그 중추적 실천 프로페션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lee@pusan.ac.kr



Issue & news

200908 Landscape Review
www.lafent.com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강릉 경포선정



강원도는 지난 7월 15일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평가위원회를 열고 강릉 경포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 환경부에 통보하였으며, 7월 22일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을 체결했다. '경포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에 대한 세부적인 조성방안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며, 내년 초까지 경포지역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마친 후 이르면 2010년 4월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포 시범도시는 인구규모 2만여명의 도시로서 2013년까지 녹색교통 도입, 저탄소주택 건설, 물자원의 순환시스템 도입, 생태녹지 도입, 저탄소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국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의 모델이 될 예정이다.

국토부, 「자전거 이용활성화 Action Plan」 확정

국토해양부는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총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금년 2월 확정된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13개 과제 중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철도 등 대중교통 연계강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개발 등 3개 분야에 해당한다.

4대강 하천제방에 1,700여km의 자전거길과 경인 아라뱃길에 2011년 말까지 36km의 자전거길을 각각 조성하기로 했으며, 취락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국도에도 2013년까지 1,700km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환승 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레포츠 열차를 시범 운행 뒤 확대하고 버스에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구현하고,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금번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최초 그린홈제로하우스 준공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단열·창호 기술 등을 적용하여 건물 유지에 에너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된 '그린홈 제로하우스'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내에 완공하고 지난 7월 10일 준공식을 가졌다.

청계천, 선유도공원, 서울디자인자산으로 선정

서울시가 서울의 디자인 발자취를 보여주는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후원(後苑), 청계천, 선유도공원, 월드컵공원, 광화문과 광장, 올림픽공원, 경복궁 등을 포함해, 인사동과 명동 등의 거리도 포함되었다.

녹색성장 자문위원회 발족

행정안전부는 녹색성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구색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자문위원회(위원장 강정은 교수)를 지난 7월 7일 공식 출범하였다.

검단신도시, 에너지절약형 도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구조, 일석자금을 위해 하천과 실개천에 중, 우수 활용을 병용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시범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월드컵공원, 생태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 푸른도시국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한 '2008년 월드컵공원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00년 당시 4백종이었던 동식물종이 현재 9백종 이상으로 파악되면서 월드컵공원이 서울 서쪽의 생태 거점공간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2009년 9월 15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3호의 주제는 '도시생태와 조경'입니다. 관련 정보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라펜트로 보내주세요!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2009년 8월 15일까지
보내실 곳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www.lafent.com

2009 Incheon IFLA APR Congress

2009 인천 세계조경가협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

2009 INCHEON IFLA APR CONGRESS

2009년 9월 1일 ~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인천광역시

주요행사 IFLA APR 실무이사회 및 총회 | 학술논문 및 작품발표 | 학생작품 공모전대회 | 조경지재 전시회 | 녹색성장관련 조경 공무원 회의 | 디자인 워크숍 | 학술답사

세부일정

9월 1일(화) 16:00-17:50 계획 및 기조연설 18:00-20:00 환영만찬

9월 2일(수) 09:30-18:10 논문발표 10:00-17:00 학생작품 공모전대회 14:00-18:00 녹색성장관련 조경 공무원 회의의 주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대비한 비전과 역할

9월 3일(목) 09:30-12:20 논문발표 10:00-17:00 학생작품 공모전대회 13:30-18:00 학술답사 | 18:30-21:00 디자인 워크숍 주제, 유티프론트와 조경디자인

9월 4일(금) 09:30-18:00 학술답사 II 10:00-17:00 학생작품 공모전대회 18:30-20:30 환영만찬

등록 및 안내 홈페이지 사전등록 : 2009년 8월 21일까지 일반 200,000원 / 학생 70,000원

현장등록 일반 300,000원 / 학생 100,000원 단체등록(5인 이상, 사전등록에 한함) 일반 100,000원 / 학생 30,000원

자세한 사항은 www.laf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와 조경의 혼성과 융합 미래를 향한 전략과 대응

Session 1. 도시조경의 생성과 재생
Session 2. 도시 유티프론트의 재생
Session 3. 독특한 경관 창출: 문화적 경관으로서 도시공원

주요행사
IFLA APR 실무이사회 및 총회 | 학술논문 및 작품발표 | 학생작품 공모전대회 | 조경지재 전시회 | 녹색성장관련 조경 공무원 회의 | 디자인 워크숍 | 학술답사

세부일정

9월 1일(화) 16:00-17:50 계획 및 기조연설 18:00-20:00 환영만찬

9월 2일(수) 09:30-18:10 논문발표 10:00-17:00 학생작품 공모전대회 14:00-18:00 녹색성장관련 조경 공무원 회의의 주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대비한 비전과 역할

9월 3일(목) 09:30-12:20 논문발표 10:00-17:00 학생작품 공모전대회 13:30-18:00 학술답사 | 18:30-21:00 디자인 워크숍 주제, 유티프론트와 조경디자인

9월 4일(금) 09:30-18:00 학술답사 II 10:00-17:00 학생작품 공모전대회 18:30-20:30 환영만찬

등록 및 안내
홈페이지 사전등록 : 2009년 8월 21일까지 일반 200,000원 / 학생 70,000원

현장등록 일반 300,000원 / 학생 100,000원 단체등록(5인 이상, 사전등록에 한함) 일반 100,000원 / 학생 30,000원

HOT Issue & News

이달의 인기 검색 키워드

▶▶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추진

세계조경가협회, IFLA-APR 개최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동구 대표공간은 서울숲
새운 초록띠공원 내 도시농장 들어서
한국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 발족
디지털 조경아카데미
광진구 걷고 싶은 다리 조성완료
'고강 뉴타운' 로드맵 가시화
LED 조명산업, 지원정책 마련 필요
용산공원 아이다어공모 1등 1억
경춘선배신부지 공원화 위한 공모전
농촌에너지 환경설계공모전

조경전문 포털사이트www.lafent.com에 접속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 및 행사, 관련정보를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 조세현
편집위원장 | 이상석
책임편집위원 | 이유직
편집위원 | 김도경 김태경 조경진 진영호 최신현
간사 | 임수정 백정희
2009년 7월 31일 발행 | 발행처 |(사)한국조경학회



그리니치 밀리니엄빌리지 생태공원 _ 영국



자전거도로 _ 독일

- 1 덴마크 H2PIA PROJECT _ 도시차일 수소에너지 활용
- 2 노르웨이 _ 탄소중립국가 선언(2050년 목표)
- 3 영국 _ 탄소제로도시 건설계획(케임브리지 _ 에너지 집약, 주택 9,500호 건설)
- 4 리비아 GREEN MOUNTAIN PROJECT _ 풍력, 태양열 발전

- 5 UAE 마스다르 프로젝트 _ 쓰레기 배출 제로, 태양열 발전, 경전철 건설 등
- 6 중국 류저우 광둥 추빙에 공원 _ 사용한 물 100% 청정 처리
- 7 중국 충칭성 동남에코시티 _ 수처리, 에너지 생산 자급자족 목표
- 8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_ 온실가스 60% 감축 등



- 9 시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_ 정부청사 25% 생태건축 등
- 10 빅토리아주 _ 지속 액션 성명 발표, 환경보호국의 온실효과 제한 등
- 11 뉴사우스웨일즈주 온실계획 _ 그린차일 등록 프로그램 등
- 12 핀란드주 기후변화 전략 _ 기존 주택 전기온수시스템 등

- 13 뉴질랜드 _ 탄소중립 국가 추구 방침
- 14 캐나다 선정가 그린프로젝트 _ 전기자동차만 운영
- 15 미국 메인대, 구글, 델 등 _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절약(미국 힐러리 대선운동 _ 탄소 중립을 위한 선거운동 활용)
- 16 코스타리카 클린 에너지 홍보 _ 바이오 연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Riem의 생태공원 _ 독일



벽면녹화 _ 영국



BRF 이노베이션의 옥상빗물 저장탱크 _ 영국



BedZED 전경 _ 영국



BRF 이노베이션의 탄소저감주택 _ 영국



Riem의 생태놀이터 _ 독일



(주) CA조경기술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865-6
 신한양빌딩 4층(우135-897)
 Tel. 02-543-4454 Fax. 02-543-4450
 E-mail. CA03@chol.com
 Homepage. www.cadesign.co.kr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